

## “위화도(威化島)의 장마”

변희룡 교수(부경대학교 대기과학과)

### 1. 개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위화도 회군(回軍)을 그 분기점으로 한다. 그 전말을 조선 왕조실록을 통하여 정리해 본다.

### 2. 역사적 경위

1392년 음력 5월, 요동정벌의 장도에 오른 고려의 대군이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에 머무를 때, 최고 지휘관인 左軍 都統使 조민수와 右軍 都統使 이성계가 함께 올린 보고서부터 보자.

“신(臣) 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 또 큰 강이 있습니다.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제2여울은 더욱 깊어서 건너지 못하고 섬에 머무니 군량만 허비합니다. 여기서 요동성까지의 중간에는 큰 강이 많이 있습니다. 건너기가 어려울 것을 알고 도망치는 병사가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중략- 근일에 불편한 일의 실상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하물며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갑옷은 무거우며,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한데, 이 상태에서 견고한 성을 공격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군량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군사를 돌이키도록 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은 사신을 보내 진군을 거듭 독촉하면서

“도망병은 현지에서 참하라”

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성계와 조민수는 사신을 가두고 거듭 사람을 보내 회군의 허락을 청했다. 그러던 중,

“이성계가 휘하의 친병(親兵)을 거느리고 이미 회군을 시작하였다.”

라는 거짓 소문이 진중에 돌았다. 이에 조민수는 혼자 이성계를 찾아와서 울면서,

“공은 가시는데 나와 내 군사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성계는 조민수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이른 다음에,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은 살피지 아니하고, 늙어 정신이 혼몽한 최영은 듣지도 않으니, 경(卿) 등과 함께 왕께 직접 보고하여, 임금 측근의 악인을 제거하고 생명(生靈)을 편안하게 하자.”

고 하며 회군을 시작했다.

이 때 장마가 수일 동안 계속되었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다가, 군사가 다 건너가고 난 후에야 큰물이 갑자기 일어 온 섬이 물에 잠기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조전사(漕轉使) 최유경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달려가 우왕에게 알렸다. 이날 밤에 이성계의 아버지 지가 이성계의 형과 이두란의 아들 등을 대리고 성주(成州)에 있던 우왕의 처소로부터 이성계의 군대가 있는 쪽으로 도망치면서, 길에서 대접하는 수령들을 만나면 그들의 말을 다 빼

앗아 갔다. 우왕은 정오가 되어서야 이들의 도망을 알았으니 어쩔 수 없어 먼저 서울로 돌아왔다. 여러 장수들이 우왕을 급히 추격하자고 청하니,  
 “속히 행군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므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될 것.”  
 이라며 거절하였다.

### 3. 위화도의 당시 지형

여기서 위화도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세조 10년 8월의 실록에 기록된 우의정 황수신의 말.

“위화도는 압록강의 갈라지는 물길이 빙 둘러 감싸고 물이 깊어서 건너가기가 어려우나, 날씨가 가물 때는 겨우 7, 80보(步)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  
 고 했다.

동년 11월 17일 평안도 순찰사가,

“압록강의 흐름은 위화도를 빙 둘러서 적강(狄江)에 들어가는데, 그 흐름이 나누어지는 첫머리는 땅이 높고 물이 얇아서 인마가 통할 수 있으니, 이를 파서 강의 흐름을 깊고 넓게 하여 농민이 적의 침략을 겁내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하자.”

라고 보고하자, 이듬해 세조는 위화도를 경작할 것을 명하며,

“위화도는 큰 강으로 경계가 막혔으니 도적을 막기 위해 목책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

다시 성종 17년, 의주 목사가,

“위화도라면 물이 깊어서 도둑이 쉽사리 건너지 못하고 또 땅이 기름지고 넉넉하므로, 둔전(屯田)을 개설하게 하자.”

고 상소하자,

“위화도는 조종조(祖宗朝)부터 의주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경작하였는데, 2년 전 방비를 게을리 하여 적이 농민을 약탈해 간 이후부터 경작하지 않았다. 수비를 튼튼히 하고 경작을 시작하라.”

고 하였다. 이상을 살펴건대 위화도는 조선 쪽에서는 접근이 용이하나 중국 쪽에서는 압록강의 큰 물줄기를 건너야 하는 장소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물 때에는 중국 쪽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통로가 생겨 자주 약탈을 당한 듯하다. 이 통로에 강을 깊게 파서 자연 방어막을 만들어 놓아도 시간이 지나거나 홍수가 나면 저절로 없어지곤 한 모양이다.

### 4. 회군을 초래한 장마

이 위화도에 이성계가 진입했을 때는 장마철이었다. 장마로 인한 불편함과 회군의 필요성을 상소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도 확실하다. 그래도 회군 허락이 내려지지 않자 이성계는 독자적으로 회군을 단행한 것이다. 이 후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계의 회군의 원인이 오로지 장마 비 때문이었는지는 한번 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이성계가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장마를 비롯한 상황들을 이용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 회군을 결정하기도 전에 회군한다는 소문이 진중에 들었다는 기록을 미루어 짐작하건

대, 이성계의 모반정조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드러나 있었던 모양이다. 거슬러 올라가 수년 전 이성계가 판삼사(判三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주관하는 대신, 지금의 부총리격)를 맡게되자 시중(侍中, 지금의 총리) 이인임이 말하기를

“장차 이성계가 왕이 되리라”

하였고 이에 최영이 크게 노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위화도의 상황이 전적으로 장마에 기인한 돌발적 사태였음을 지지하는 자료는 더 많다. 첫째는 처음부터 회군을 계획했었다면 회군의 필요성을 여러 번 상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회군한다는 거짓 소문을 듣고, 당시로는 대등한 관계였던 조민수가 이성계를 혼자서 찾아왔다는 사실이다. 회군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조민수를 미리 포섭하거나 처단하였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출정하는 이성계가 가족을 우왕의 근처에 여전히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왕은 이성계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회군 소식을 듣고도 그 가족을 구속하지 않았고, 그들이 도망간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음이 그 것을 대변한다. 이성계가 가족을 미리 우왕의 곁에서 피신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리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우왕을 급히 추격하자는 측근의 충동을 거절하는 이성계의 자세이다. 우왕에 대한 적개심은 크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의도가 보인다. 반역이 목표가 아니며 “생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부득이 회군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상자가 날 가는성이 있는 싸움은 피하겠다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시각을 최대한 바꾸어 위 모든 사실을 이성계가 처음부터 계산하고 이용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다음의 네 가지 가정 즉,

“장마 비 때문에 진군이 어려워질 테니 그것을 기회로 회군하자.”,

“조민수는 이성계가 회군한다면 반항할 사람이 아니다.”,

“가족은 우왕의 곁에 두고 가는 것이 의심을 받지 않는다.”,

“고려 왕실을 상대로 유혈사태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

라고 계산했다고 간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점은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실제로 조선 건국 후에는 고려왕족을 몰살 시켜버린 점도 한 증거가 된다. 조민수가 혼자서 찾아온 점도, 또 혼자 찾아온 조민수에게 전혀 강요한 흔적이 없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장마 비를 사전에 계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장마의 시기나 강도는 매년 변할 뿐 아니라 당시에 이런 상황을 예측할 만한 지식이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위화도회군은 전혀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 아니며 순전히 장마 비에 기인한 우발적 사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결과적으로 고려 왕조로서는 장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망국의 화를 자초한 셈이고, 조선의 입장으로는 장마라는 기후에 힘입어 건국하게 된 셈이다. 미국의 독립과정에서도, 일본의 최초 통일과정에서도, 태평양전쟁의 패권 향방에서도 기후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전에 서술한 적이 있었다(참조 : 졸저, ‘이야기로 간추린 天氣 天氣’, 1994년 정명당). 이들을 함께 요약해 보면 인류 역사발전의 큰 길목에는 天氣의 조화가 많이 동반되더라는 이야기이다. 조금 비약하여 비과학적인 말로 줄여 보면,

“天氣는 天氣가 구체화되는 과정”

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강하게 대두된다.

## 5. 귀신지사에 대한 이해

그런데 여기서 조선왕조실록의 기술자세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거론된 모든 추리가 실록의 기록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는 항상 개국 왕조는 호의적으로, 망국왕조는 비판적으로 기록하여 왔다. 그 점을 감안하고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심한 면이 있음이 사실이다. 실록은 위화도회군이 이성계의 정권야욕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즉, 예정된 天機의 구체화 과정임을 강조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지 않다.

구체적 증거도 많은 편이다. 연일 계속된 장마에도 잘 견디어 낸 위화도가 회군 후에 바로 침수되었음을, 실록은 장마 강도의 증가가 원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신비한 힘이 이성계를 돕고 있다는 시각으로만 적고 있다. 이 내용은 실록에서 여러 번 등장한다. 실록은 또 '용비어천가'를 통하여 더욱 황당하게 부연한다. 이성계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다. 시기하는 무리가 해치려고 하니 신령한 할미가 나타나 미리 예고해 주더란다. 그래서 피하는 데 물이 깊고 배가 없어 형세가 매우 급박한 지경에, 갑자기 물이 저절로 줄어서 건넜다고 한다. 이성계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이다. 나무 위에 까치가 있어 쏘았더니 두 마리가 한 화살에 잡혔는데, 지나가던 뱀이 까치를 물어다가 나무 위에다 올려 놓더란다. 또 꿈에 흰 용이 나타나

“검은 용이 내 집을 뺏으려 한다”

고 하므로 검은 용을 활로 쏘아 죽였더니, 흰 용이 말하기를

“장차 자손에 큰 경사가 있으리라” 고 하였다고 한다.

이성계의 자신의 기록이다. 임금이 되기 전 어느 날, 꿈에 신령이 금으로 만든 자를 주면서 “이것으로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 어떤 중이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다는 이상한 글을 주더란다. 그 글 속에는

“목자(木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삼한의 땅을 바로 잡으리라“

는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목자란 이(李)씨 즉 이성계를 말하며 이 기록은 용비어천가 뿐 아니라 실록에서 아주 많이 반복된다. 오래 동안 마르고 썩어 있던 나무가 이성계가 왕이 된 첫 해에 다시 가지가 뻗고 잎이 피었다고도 한다. 또 이방원도 왕이 되기 전에 침실에 흰 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물과 노인과 이상한 글자를 등장시키는 귀신지사(鬼神之事)는 중국 고사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는 수법들이다. 진승, 유방, 장량, 광무제 등 혁명가의 고사에서는 아주 비슷한 얘기도 있다. 그러니 용비어천가를 날조된 귀신지사라고 간주해도 되리라. 따라서 실록 또한 정권 창출의 합리화를 위해 날조되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6. 맺는 말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다시 검토해 봐도, 위화도회군의 직접적 원인이 장마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이를 부정하려면, 실록 전체를 부정하거나 이 사실을 부정할 만한 다른 사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마는 귀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 설명에도 장마발생에 관한 한 무리하게 가공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조선은 장마 비 때문에 건국된 나라라는 결론이다. 그래서 세계최초의 측우기가 이 왕조에서 발명되었는지도 모른다.-끝.